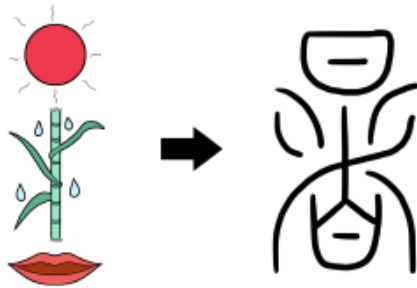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暑

더울 서:

暑자는 '더위'나 '덥다', '여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暑자는 日(해 일)자와 耑(놈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耑자는 사탕수수액이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日자를 더한 暑자는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暑자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을 뜻하기 때문에 '덥다'나 '더위'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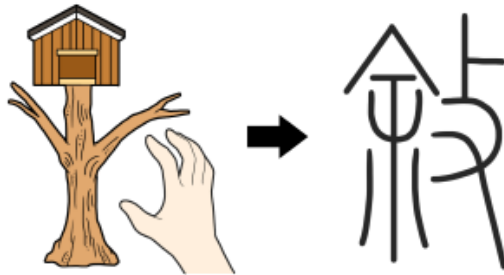
暑

소전

暑

해서

회의문자①



敍

펼 서:

敍자는 '차례'나 '펴다', '늘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敍자는 余(나 여)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余자는 나무 위에 지은 조그만 집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차례'라는 뜻은 攴(또 우)자가 들어간 敍(차례 서)자가 먼저 쓰였었다. 敍자는 나무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목재를 순서대로 올린다는 의미에서 '늘어서다'나 '차례'라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후에 글자가 바뀌면서 지금은 敍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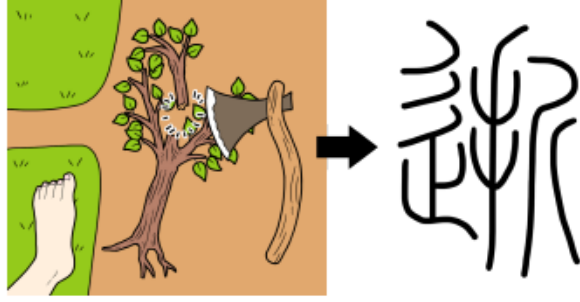
敍

소전

敍

해서

회의문자①



逝

갈[往]
서:

逝자는 '가다'나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逝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折(꺾을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折자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꺾다'나 '자르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折자에 辵자를 결합한 逝자는 '길이 끊어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길'란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것이다. 길게 이어지던 인생이라는 길이 끊어졌으니 삶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逝자는 '죽다'나 '세상을 떠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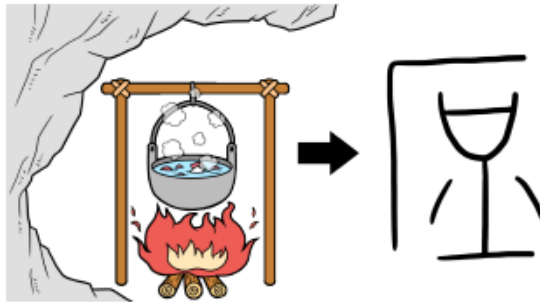
逝

소전

逝

해서

회의문자①



庶

여러 서:

庶자는 '여러'나 '많다', '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庶자는 广(집 엄)자와 𠂔(빛 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庶자를 보면 广자가 아닌 厂(기슭 엄)자가 쓰여 있었다. 여기에 口(입 구)자 아래로는 火(불 화)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삶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庶자는 본래 '삶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산기슭에서 무언가를 삶아 먹는 모습에서 소박함이 느껴졌었던 것 같다. 庶자는 후에 매우 소박하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천하다'나 '비천하다', '여러'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庶

갑골문

庶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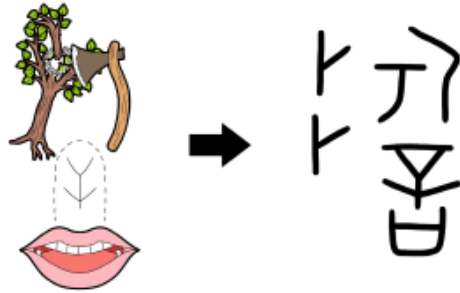
庶

소전

庶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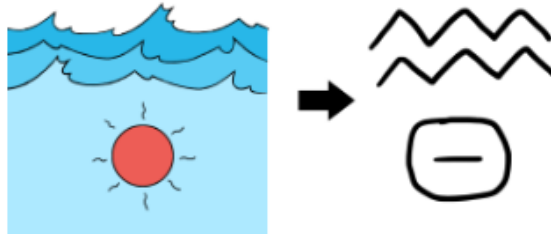
誓

맹세할
서:

誓자는 '맹세하다'나 '서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誓자는 折(꺾을 절)자와 言(말씀 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折자는 나무를 도끼로 갈라 두 동강 낸 모습을 그린 것으로 '꺾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에는 誓자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다짐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誓자에 쓰인 折자는 나무를 두 동강 낸 정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言자는 다짐을 '말하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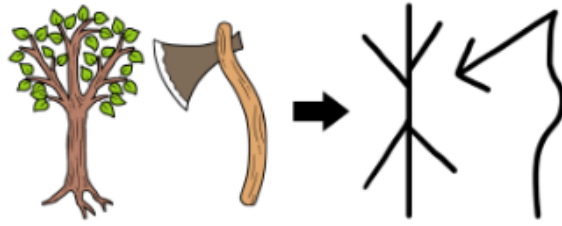
昔

예[古]
석

昔자는 '옛날'이나 '오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昔자는 日자(해 일)자와 𠂔(내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昔자를 보면 흐르는 물 아래로 태양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태양이 물에 잠길 정도로 강물이 범람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昔자는 본래 4,300년 전 중국에서 발생했던 대홍수를 일컫던 글자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홍수'를 뜻했었으나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후에 '옛날 옛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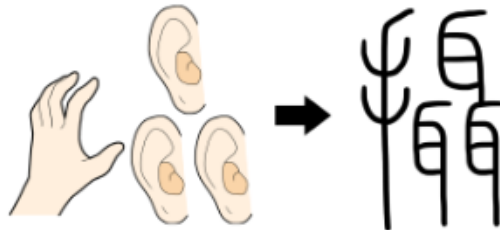
析

쪼갠 석

析자는 '쪼개다'나 '가르다', '밝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析자는 木(나무 목)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斤자는 자루 끝에 날이 달린 도끼를 그린 것이다. 析자는 이렇게 도끼를 그린 斤자에 木자를 결합한 것으로 나무를 자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析자는 '쪼개다'가 본래의 뜻이지만 '해부하다'나 '밝히다'와 같이 사물이 갈라지는 것에서 연상되는 의미가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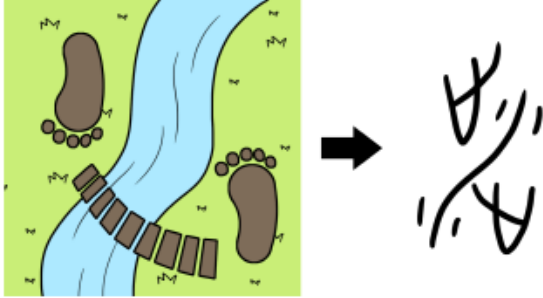
攝

다스릴/
잡을 섭

攝자는 '당기다'나 '거느리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攝자는 手(손 수)자와 聃(소곤거릴 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聃자는 귀를 중복해서 그린 것으로 작은 소리로 소곤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 소곤거리는 소리는 가까이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기에 여기에 手자를 결합한 攝자는 잘 들리지 않아 손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귓속말은 옳지 못한 일로 누군가를 꺾어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攝자는 '꺾어내어 끌어들이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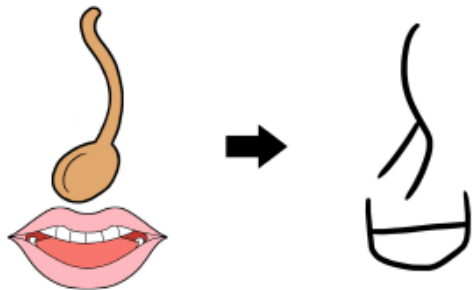
涉

건널 섭

涉자는 '건너다'나 '지나다', '겪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涉자는 水(물 수)자와 步(걸음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步자는 왼발과 오른발을 함께 그린 것으로 '걸음'이라는 뜻이 있다.涉자의 갑골문을 보면 하천(水) 양 끝에 발이 하나씩(步) 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하천을 건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涉자는 단순히 물을 '건너다'라는 뜻 외에도 '영향을 미치다'나 '관계하다'와 같이 양측을 중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召

부를 소

召자는 '부르다'나 '불러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召자는 刀(칼 도)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召자는 마치 입 위에 칼을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쓰인 刀자는 '수저'라는 뜻을 가진 匕(비수 비)자를 그린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그러면 召자는 수저에 담긴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실 召자에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손님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여기에 手(손 수)자가 더해지면 손을 흔들어 불러들인다는 뜻의 招(부를 초)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